

## 연구논문

## 인터넷, 교육열망,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Internet, Educational Aspiration, and Family's Social-Economic Status

정재기\*

Jaeki Jeong

본 연구는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들의 교육열망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의 정보격차 관련연구들은 다양한 속성에 따른 구체적인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가 세대간 불평등의 재생산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부모의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형태의 변이 원인을 교육열망의 기제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청소년패널조사(KYPS)를 무작위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수록, 정보지향적 인터넷 활동빈도는 증가하고, 오락지향적 인터넷 활동빈도는 감소한다. 청소년의 높은 교육열망 역시 정보지향적 이용을 증가시키고, 오락지향적 이용을 감소시킨다. 교육열망의 매개효과는 정보지향적 이용에서 더욱 뚜렷하며, 교육열망의 효과는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의 함의와 한계가 결론에서 논의되었다.

**주제어:** 정보격차, 인터넷, 교육열망, 청소년패널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amily background and educational aspiration of adolescents affect the usage pattern of internet among adolescents. Recently, the focus of studies on digital divides shifts from the gap in the access to the internet to the difference in usage pattern of internet. Building on these studies,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cerns that the difference in usage pattern of internet among adolescents potentially lead to the reproduction of social inequality across the generations. The analysis of the Korean Youth Panel Study reveals that the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higher income level of parents, the children tend to spend more time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조교수 정재기.

E-mail: Jaeki@ssu.ac.kr

in searching with the internet and spend less time in doing the internet game. The level of educational aspiration exerts similar effects on internet use of adolescents.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effects of educational aspiration is larger among older adolescen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digital divides, internet, educational aspiration, Korean Youth Panel Study

## I. 문제제기

정보격차(digital divides)는 정보화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정보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정치적 참여, 경제적 보상, 사회적 연대, 문화적 정체성의 발현—의 양상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들은 기술확산의 긍정적 효과가 기존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주로 향유됨으로써, 정보화의 확산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의 양상을 확대시키는 것을 우려한다.

본 연구는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를 세대간 불평등의 재생산이라는 사회학적 불평등 연구의 시각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사회학적 불평등 연구는 거시적인 사회이동연구(Erikson et al. 1979; Feathermann & Hauser 1978)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의 정도를 분석하고, 지위획득 모형과 이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그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Blau & Duncan 1967; Sewell et al. 2004; Lin 2002). 최근 성행하는 문화자본론과 사회자본론에 관한 연구 역시, 사회적 불평등의 세대간 재생산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Bourdieu 1984, 2001).

접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던 초기 정보격차론의 배경에서, 거의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한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보격차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정보격차의 문제는 활용의 차원에서 재정의되고 있다(Dimmaggio & Hargittai 2001; Van dijk 2005; 김문조·김종길 2002). 관련 연구들은 사용자간의 구체적인 인터넷 활용의 차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쟁점은 새로운 정보

기술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나의 것이 되었다.

최근의 일련의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정보검색이나 자본증진적 사이트 이용 등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소년들에게서 주로 발견된다. 그런데 정보검색의 기술이 주로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면(Hargittai 2002; Hargittai & Hinman 2008), 청소년들의 이러한 인터넷 활용의 차이는 지식경제 사회에서 생산성의 차이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행태의 차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의 차이로 귀결되고, 부모세대의 사회적 불평등은 자녀세대의 불평등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행태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주로 인터넷 몰입에 한정되던 초기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에 대한 연구는 점차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일반적인 인터넷 활용 패턴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김은미·정화음 2007; 나은영·박소라·김은미 2007; 정재기 2007).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김은미 2011; 정재기 2011). 본 연구는 동일한 청소년들을 다년 간에 걸쳐 조사한 패널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인터넷 활용패턴의 차이가 발생하는 기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기존연구를 검토하는 II장에서는 정보격차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이들 연구에 기반한 가설을 설정할 것이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전달되는 기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자료의 성격과 변수 및 연구방법 등이 제시된 후, I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기반한 논의와 연구의 한계가 V장에서 제시될 것이다.

## II.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보격차론적 접근

### 1. 정보격차론

정보격차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개념적으로 정보를 가진 자들과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간에 나타나는 경제적 보상과 정치적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의 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Van dijk 2006; Dismaggio & Hargittai 2001;

김문조·김종길 2002; 서이중 2000). 정보격차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은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이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의 양상을 줄이고자 하는 지향에서 출발한다. 즉,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정보격차 연구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도입을 통해서 많은 유용한 정보는 더욱 쉽게 검색되고 저장될 수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참여의 비용 역시 획기적으로 감소할 여지가 발생하였다. 또 이메일과 SNS(Social Network Services)의 확산으로 공간과 시간을 넘어선 사회적 소통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기존의 사회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전유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Norris는 인터넷이 기존체제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정치참여는 많은 경우에 이미 정치적으로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Norris 2001).

초기의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단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이분법적 구분에 주력하였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와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등에 따른 변이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하면, 미국 및 서구의 발전된 국가에서는 양적 격차는 21세기에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성별의 차이는 더 이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과 교육에 따른 차이가 크며 연령에 의한 차이도 여전히 발견된다(Van dijk 2006).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년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70.2%이고 장애인, 농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평균이 24.9%로 약 45%의 차이를 보인 데 반해, 2010년에는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8.3%, 취약계층의 그것은 44.3%로 약 30%가 넘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접근의 측면에서의 정보격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연령에 따른 접근격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정영호·이혜미 2010).

접근격차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적 노력은 그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보격차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보편적 접근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sup>1)</sup>은 사용자 측면의 특성을 간과한 기술결정론적 관점이라는 것이다 (Van dijk 2005; 박해광 2003).

1) 이러한 관점은 일단 인터넷을 이용하기만 하면, 그 사용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Nie & Ebring(2000)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Molnar(2003)는 정보기술의 확산단계에 따라 정보격차의 문제의식이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초기 도입기에는 접근 가능자와 불가능자의 격차인 정보접근격차가, 도약기에는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격차인 양적인 정보활용격차가 문제시되며, 포화기에 이르면 이용자들 내부의 질적인 정보활용격차가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기술의 확산에 따라 수적으로 증가한 이용자 집단 내부의 다양한 이질성, 혹은 이차적 정보격차(second level digital divides)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Atwell 2000; Hargittai 2002). Dimmagio & Hargittai(2001)는 이러한 이용자 집단 내부의 차별성을 기술적 수단, 자율성, 기술, 사회적 지원과 목적에 따른 차이로 구분하고 있으며, Van dijk(2005)는 이러한 이용자 집단의 다양성을 동기적 차원, 기술적 차원, 이용의 차원의 연관 속에서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 내부의 동기와 기술, 활용시간 및 활동의 다양성 등의 차이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Van dijk가 제시한 ‘정보기술(information skills)’와 ‘전략적 기술(strategic skills)’이라는 개념적 구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정보기술은 컴퓨터 및 인터넷의 구조를 이해한 배경에서 특정한 주제에 관한 정보를 발견, 선택,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전략적 기술은 이렇게 발견된 정보를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의 확인과 지식의 활용 양 측면의 차이를 적절히 지적한 개념쌍으로 이해된다.

궁극적으로 전략적 기술이 정보격차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적 기제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정보기술에 관한 소수의 연구만을 발견할 수 있다. Mossberger et al.(2003)은 기술적 능력(technical competence)과 적절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internet literacy)의 양 측면 모두에서 연령과 교육 및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Hargittai(2002)는 실험실적 상황에서 정보기술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교육수준보다 실제 검색의 경험이 정보기술에 보다 큰 영향을 보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접근격차에 비해 정보기술의 격차가 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공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제의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용자들간의 실제 활용면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 역시 축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Bonfadelli(2002)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이질적이며 잠재적으로 무제한적이기’이며, 인터넷이 이

전 미디어에 비해 보다 이용자의 능동성을 수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인터넷의 구체적인 활용은 보다 개별화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교육수준이다.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검색 및 뉴스구독 등의 정보추구적인 활동과 금융거래 등의 서비스 목적의 인터넷 활용이 많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은 게임 등 오락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그의 연구는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Howard et al. 2001; Madden 2003). 또, Hargittai & Hinman(2008)는 교육수준이 개인의 인터넷 정보기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뉴스, 선거, 건강 및 금융정보, 정부 사이트, 그리고 생산품 관련 정보 사이트 등 7개의 ‘자본증진적(capital enhancing)’ 사이트에 대한 방문빈도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성인들의 인터넷 이용행태의 차이가 청소년들에게서도 동일한 형태로 발견된다. Koivusilta et al.(2007)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의 활용이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과 관련되고, 게임에의 몰입은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eter & Valkenburg(2006)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보추구적인 인터넷 이용과 교제지향적인 인터넷 이용을 자주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오락지향적인 인터넷 활동에 종사함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터넷 활용의 포괄성(김은미·정화음 2007) 혹은 정보지향적인 인터넷 활용(정재기 2011) 사이에는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서우석·이호영(2006)은 이용과 충족이론을 문화자본론의 입장에서 재해석함으로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한다. 행위자들은 인터넷매체에 대해 상이한 요구를 가지는 데, 이러한 상이한 요구는 그들의 계급적 위치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문화적 취향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한다.

가설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오락지향적인 인터넷 이용형태를 보일 것이다

가설 1-1: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게임을 보다 더 자주 할 것이다.

가설 1-2: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인터넷 게임을 더 자주 할 것이다.

가설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보지향적인 인터넷 이용형태를 보일 것이다

가설 2-1: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검색적 인터넷 이용을 더 자주 할 것이다.

가설 2-2: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보검색적 인터넷 이용을 더 자주 할 것이다.

## 2. 재생산기제의 탐색: 교육열망을 중심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재기(2011)는 ① 모방 ② 중재(mediation) ③ 열망(aspiration) 등 세 가지 기제를 제시한다. 모방 및 학습을 강조하는 주장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회화에서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로서의 부모의 역할에 주목한다. 부모의 성향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에 체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및 모방의 기제는 다양한 매체이용 연구에서 확인된다. TV 시청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부모의 TV 시청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시청시간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Anderson et al. 2001; 김우찬·이운석 2009). 인터넷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재기(2007, 2011)는 부모의 게임시간과 검색시간이 각각 자녀의 게임시간의 비중과 검색시간의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김은미(2011) 역시 부모의 인터넷 이용패턴이 자녀의 인터넷 이용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중재는 부모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형태에 직·간접적인 형태로 개입하는 것이다. TV시청에 관한 연구를 원용하면, 청소년들이 TV를 통해 접하는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과, TV 시청시간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규칙을 세우는 것 등을 의미한다(Nathanson 1999). TV 및 인터넷 중재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중재활동에 보다 적극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Warren 2005; 안정임 2008). 따라서 이러한 부모의 중재행위가 효과적이라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의 차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요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열망의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교육적 성취의 수준은 높아지며, 이러한 높은 기대와 이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관여는 자녀의 성취동기와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교육수준인 교육열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ewell et al. 1970; Kalmijin 1994).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열망을 가진 청소년들은 행동의 지속기간이 길고, 지속여부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컴퓨터 및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거나 지속기간이 짧은 게임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또,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

에서 이용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인 청소년 패널은 부모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방 및 학습의 효과, 즉 부모의 인터넷 이용행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검증할 수 없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은 일관되게 TV 시청 및 인터넷 이용에 관한 부모의 중재 효과는 그리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Livingstone & Helsper 2008; 안정임 2008). 정재기(2011)는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의 효과가 학령이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결과에 기반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교육열망의 차이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성향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된 기제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청소년의 교육열망이 인터넷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교육열망이 높을수록 정보검색적 인터넷 이용을 더 자주 할 것이다.

가설 3-2: 교육열망이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을 덜 할 것이다.

교육열망이 청소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청소년이 성장하여 대학입시가 가까워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때, 그리고 고등학교 고학년일수록 교육열망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차이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 교육열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영향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커질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

본 연구의 자료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를 사용하였다. KYPS는 2003년에 처음 실시된 것으로 2003년부터 2008년에 걸쳐 총 6차에 걸쳐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인 5차년도에 조사까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003년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층화집락추출 표집법에 의하여 총 3,697명의 청소년으로 1차년도의 조사대상이 확정되었으며, 2차년도 이후 3,449명의 동일한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를

5년에 걸쳐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표본의 상대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만을 추출하였으며, 최종모형을 기준으로 결측치가 없는 사례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2,656명의 청소년으로부터 총 12,101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KYPS가 제공하는 가중치를 사용한 결과가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자료누락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 2. 변수

종속변수: 구체적인 인터넷 이용활동에 대한 활용빈도를 묻는 설문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행태를 측정하였다. KYPS는 검색, 게임, 이메일 등의 다양한 인터넷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질문하였고, 응답자들은 '전혀 안 한다'에서 '매우 자주 한다'로 구성된 5점 척도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행동빈도를 기입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항목들의 공통된 요인을 추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sup>2)</sup> 구체적인 항목과 요인부하값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컴퓨터 활동 이용 정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컴퓨터 활동 이용 정도	요인 1	요인 2	요인 3
게 임			.697
채팅 및 메신저	.608		
전자우편	.728		
동호회/카페/커뮤니티	.781		
게시판활동	.704		
성인용 사이트 열람			.803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검색 및 열람		.824	
기타 정보검색 및 열람		.791	
설명된 분산(%)	27.5	19.02	14.53

\* 주성분분석, 직교회전

2) 각 년도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과 항목간의 관계가 일치하였다. 따라서 5년치의 사례를 한꺼번에 요인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은 청소년의 인터넷 활동은 메일이나 메신저, 사이버 커뮤니티의 참여 등을 포함하는 ‘관계지향적 이용’과 학습 혹은 일반적인 검색활동으로 구성된 ‘정보지향적 이용’, 그리고 ‘인터넷 게임’과 ‘성인용 사이트 감상’ 등으로 구성된 ‘오락지향적 이용’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각각의 요인에 묶인 항목들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된 결과, ‘오락지향적 이용( $\alpha=.348$ )’을 제외하고 ‘사교지향적 이용( $\alpha=.659$ )’과 ‘정보지향적 이용( $\alpha=.666$ )’ 항목의 경우 .6가 넘는 크론바흐의 알파값을 보였다. ‘성인용 콘텐츠 감상’이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의 영향 등으로 응답의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이용빈도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단일 항목인 게임이용의 빈도를 통해 오락지향적 이용을 측정하였다.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은 두 항목의 평균값을 구하여 제시하였다. 관계지향적 인터넷 이용은 기술통계에서는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정보격차론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회귀분석의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독립변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모친의 교육과 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다. 부모 교육은 주로 어머니의 교육을 사용하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결측치인 경우 아버지의 교육으로 대체하였다. 주로 어머니의 교육을 사용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접촉 빈도가 높고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Dimaggio 1982; Bianchi & Robinson 1997; 김우찬·이윤석 2009). 원자료에는 교육수준이 8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으나,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 연속변수로 제시된 원래변수의 자연대수값을 취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교육열망은 대학교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통제변수:**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들은 성, 연령, 지역규모에 따른 인터넷 접근 및 활용의 차이를 발견하여 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동갑인 청소년들을 5년에 걸쳐 질문하였기 때문에 조사연차로 연령을 대신하였다. 지역 규모는 읍, 면, 동으로 구분된 원자료를 동과 기타 범주로 구분하였다. 성은 남성을 준거집단으로 한 가변수로 전환하였다.

### 3.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조사대상을 여러 시기에 걸쳐 반복추적하여 조사하는 패널조사이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조사대상내의 특정조건외의 변화와 다른 현상과의 관련을 탐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간의 속성의 차이가 인터넷 이용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무작위효과모형(random-effect)을 이용하였다. 무작위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의 적절성을 비교하는 하우스만 테스트의 결과는 무작위효과모형이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보다 더 적절한 모델임을 보여 주었다.

$$Y_{it} = \beta X_{it} + v_{it} + \epsilon_{it} \quad (1)$$

여기서  $v_{it}$ 는 행위자들간의 오차항을,  $\epsilon_{it}$ 는 행위자 안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무작위효과모형은 독립변수들과 행위자들간의 오차항이 무작위적이고 상관이 없다는 가정하에 시간변이변수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TATA Ver10.0을 통해 일반최소자승법(GLS)를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표 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보여 주고 있다.

컴퓨터 활동은 앞서 서술한 대로 총 8가지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컴퓨터 활동의 세 차원에 대한 활동빈도를 평균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자주 이용한다

〈표 2〉 기술통계: 주요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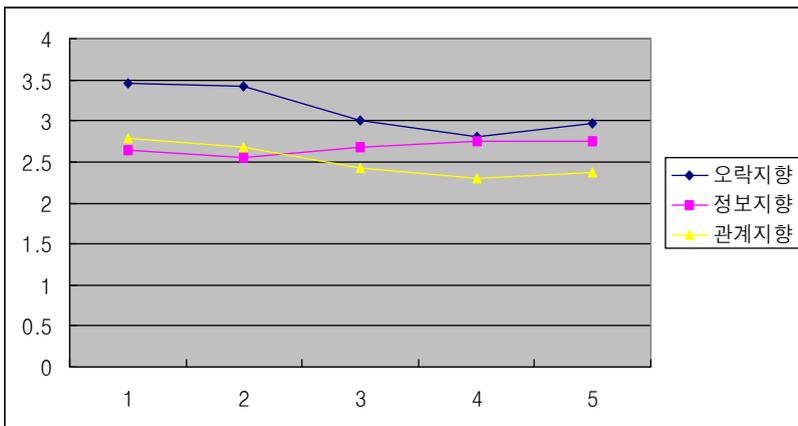
(N = 12,10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컴퓨터 이용	게임	3.13	1.31
	정보지향	2.67	1.02
	관계지향	2.51	.78
모친교육	전문대졸 이상	0.24	0.42
가구소득	(월, 만원)	320.85	179.88
교육열망	대학졸업 이상	.82	.04
성별	여성	.49	0.50
거주지역	동 이상(vs. 읍면)	0.87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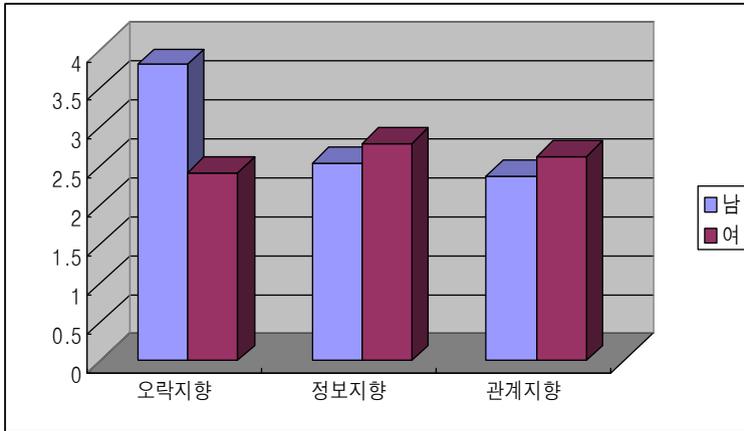
는 것을 의미한다. <표 2>에 따르면 오락지향적인 인터넷 이용이 가장 빈번하고 관계지향적 인터넷 이용이 가장 적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정재기 2007).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살펴보자.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어머니를 둔 청소년은 전체 사례를 기준으로 24%였다. 가구소득은 평균이 320만원이나 우편이 되어 있는(right skewed) 소득의 특성상 중앙값인 300만원에 비해 다소 높았다. 82% 이상의 청소년들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였다. 여성의 비율은 50%에 살짝 못미쳤으며, 87%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시지역에 거주하였다.

연도별로 구체적인 활동의 추이를 비교해 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대상이 중학교 2학년이던 일년차 조사에서는 오락지향적 활동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관계지향적 활동과 정보지향적 활동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오락지향적 활동과 관계지향적 활동빈도는 점차 낮아지고, 정보지향적 활동빈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이용행태의 남녀간 차이를 비교하는 <그림 2>는 남성이 오락지향적 인터넷 이용행태가 강한 반면, 관계지향형과 오락지향적 인터넷 이용은 여성이 더 활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은 오락지향적 이용이, 여성은 관계지향적 이용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인터넷 이용행태의 추이>



〈그림 2〉 남녀 청소년간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

〈표 3〉 게임활동빈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결과(무작위효과모형)

(N = 12,101)

변 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친교육	전문대졸 이상	-.24(.04)***	-.21(.04)***	-.11(.05)*
가구소득	(월, 만원)	-.06(.02)**	-.05(.02)*	-.05(.02)*
연 령		-.16(.01)***	-.15(.01)***	-.11(.01)***
성 별	여	-1.39(.03)***	-1.38(.03)***	-1.38(.03)***
거주지역	동 이상(vs. 읍면)	-.08(.05)	-.07(.05)	-.07(.11)
교육열망	대학졸업 이상		-.21(.04)***	-.08(.16)
상호작용	연령*모친교육			-.03(.01)*
	연령*교육열망			-.04(.01)*
상 수		6.12	6.24	6.13
Sima_u		.65	.65	.65
Sigma_e		.87	.87	.87
R <sup>2</sup> (within)		.08	.08	.08
R <sup>2</sup> (between)		.45	.46	.46
R <sup>2</sup> (overall)		.31	.32	.32

\* 가로안은 표준오차

\*\* \* p<.05 \*\*p<.01 \*\*\* p<.001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열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표 3>은 오락지향적 이용을 종속변수로 한 무작위효과모형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변수들만의 주효과만을 분석한 <모형 1>에 따르면, 어머니의 교육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오락지향적 인터넷 이용빈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오락지향적 인터넷 이용과의 부적관계를 설정한 가설 1이 지지되고 있다. 연령과 성의 효과는 앞서 서술한 바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규모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 2>는 <모형 1>에 교육열망을 추가한 모형이다. 대졸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열망을 가진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뚜렷하게 오락지향적 인터넷 활동의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열망이 오락지향적 인터넷 이용을 억제할 것이라는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이때, 모친교육의 효과와 가구소득의 효과는 조금씩 줄어들어, 교육열망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어느 정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3>은 연령에 따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열망의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다. 가구소득과 연령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비록 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모형비교의 결과는 <모형 3>이 <모형 2>에 비해 보다 더 적절한 모형임을 알려주고 있다(자유도 = 2, 카이제곱치 = 18.4).

상호작용항의 계수를 살펴보면, 교육열망과 부모의 교육수준 모두 주효과와 같은 방향의 계수를 보이고 있다. 즉, 교육열망과 부모의 부적효과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졸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간의 게임빈도의 격차는 청소년들이 중학교 2학년인 1차년도에는  $.15(= -.11 - .04)$ 였으나, 5차년도에는  $-.31(= -.11 - 5 \times (-.04))$ 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교육열망의 효과도 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진다는 것을 <모형 3>은 보여 주고 있어, 가설 4를 지지해 주고 있다.

<표 4>는 정보지향적 인터넷 활동빈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형 1>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수의 주효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게임활동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지역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소득변수의 계수의 방향은 게임활동에 대한 분석과는 반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오락지향적인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모형 1>에 교육열망 변수를 추가

한 <모형 2>에서 교육열망의 정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가설 3-2를 지지하고 있다. 이때, 모형의 설명력은 .026에서 .051로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의 효과는 크게 감소하고, 소득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교육열망이며, 그것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매개하는 효과가 게임활동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3>은 교육열망과 연령과의 통계적 상호작용함이 유의미함을 보여 줌으로써, 교육열망의 효과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는 가설 4를 다시 한 번 지지해 주고 있다. 비록, 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모형비교의 결과는 <모형 3>이 <모형 2>에 비해 보다 더 적절한 모형임을 알려주고 있다 (자유도 = 1, 카이제곱치 = 7.8). <모형 3>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때 교육열망의 효과는 .37(=.34 + .03)임에 반해, 고등학교 3학년때의 그것은 .49(=.34 + 5 × .03)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대학졸업 이상을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들에서는 연령에 따른 정보지향적 인터넷 활동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 .44).

<표 4>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빈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결과(무작위효과모형) (N = 12101)

변 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친교육	전문대졸 이상	.17(.03)***	.10(.03)**	.10(.03)**
가구소득	(월, 만원)	.04(.02)*	.02(.02)	.02(.02)
연 령		.04(.01)***	.04(.01)***	.01(.01)
성 별	여	.25(.03)***	.25(.03)***	.25(.03)***
거주지역	동 이상(vs. 읍면)	.01(.04)	-.00(.04)	-.00(.04)
교육열망	대학졸업 이상		.46(.03)***	.34(.05)***
상호작용	연령*교육열망			.04(.01) **
상 수		1.91	1.66	.175
Sigma_u		.56	.54	.54
Sigma_e		.83	.83	.84
R <sup>2</sup> (within)		.01	.01	.01
R <sup>2</sup> (between)		.05	.11	.11
R <sup>2</sup> (overall)		.026	.054	.054

\* 가로안은 표준오차

\*\* \* p<.05 \*\*p<.01 \*\*\* p<.001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과 오락지향적 인터넷 이용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기존연구와 일관되게, 높은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오락지향적 인터넷 이용의 빈도를 낮추는 한편,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빈도는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열망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재기(2011)의 제안에 따라 교육열망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교육열망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매개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 효과는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에서 상대적으로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열망의 인터넷 활용형태에 대한 효과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Bonfadelli 2002; Madden 2003), 이러한 이용형태의 차이가 청소년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Koiyusilta et al. 2007; 김은미 2011; 정재기 2011). 또, 접근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정보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적어도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본 연구가 확인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세대간에 걸쳐 재생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이 정보검색의 '정보기술'과 '전략적 기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Van dijk 2005; Hargittai & Hinnaat 2008), 신뢰성 있는 유관한 정보를 검색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전략적 기술'이 경제적 생산성 및 시민적 참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Kim 2003; Norris 2001).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높은 임금을 주는 직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선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인터넷 사용능력(literacy)과 임금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 생산적인 인터넷 이용능력이 인적자본의 중요한 한 요소임을 보여 주고 있다(Lee & Kim 2004; Ng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이들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성취의 수준을 확인함으로써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KYPS가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한 이후에도 지속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우선 종속변수의 측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의 측정범주는 ‘전혀 안 한다’에서 ‘매우 자주 한다’의 5점 척도이다. 구체적인 시간범주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응답자의 주관적 측면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그 타당성 및 신뢰도가 확인된 시간일지를 활용한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다 정확한 인터넷 이용형태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아쉬운 측면이다.

또 다른 한계로는, 부모의 인터넷 이용형태에 대한 정보와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에 대한 변수가 자료의 한계상 통제되지 못 했다는 것이다. KYPS는 부모의 인터넷 활용에 대해서는 묻고 있지 않다. 부모의 일상적인 청소년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인터넷 이용에 대한 중재활동에 대한 변수는 담고 있지 않다. 연구결과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청소년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변수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에 대한 중재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판단되지만(박소라 2005; Livingstone & Helsper 2008), 구체적으로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했다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보다 더 엄밀하게 분석·논의될 수 있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문조·김종길. 2002. “정보격차의 이론적, 정책적 제고.” 《한국사회학》 36(4): 122-155.
- 김은미 2011. “부모와 자녀의 인터넷 리터러시의 관계: 인터넷 리터러시는 대물림되는가.” 《한국언론학보》 55(5): 155-177.
- 김은미·정화음. 200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격차에 대한 탐색.” 《언론정보연구》 43(2): 125-161.
- 김우찬·이윤석 2009. “부모가 자녀의 TV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1): 29-55.
- 나은영·박소라·김은미.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유형별 미디어 이용양식과 적용.” 《한국언론학보》 51(2): 392-423.

- 박소라. 2005. “어린이의 인터넷 이용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4): 166-191
- 박해광. 2003. “정보격차의 새로운 동향.” 《경제와 사회》 59: 78-102.
- 서우석·이호영. 2006. “문화취향이 정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13(3): 212-233.
- 서이중. 2000.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화와 사회문제화.” 《정보와 사회》 2: 68-87.
- 안정임. 2008. “인터넷이용 증재유형과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 (6): 230-266.
- 정영호·이혜미 2010. “다면적 정보 격차의 변화와 그 요인: 2005년~2009년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3): 228-261.
- 정재기. 200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실태: 생활시간 자료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 52-77.
- 정재기. 20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실태” 《한국사회학》 45(5): 197-225
- Anderson D.R., A.C. Huston, K.L Schmitt, D.L. Linebarger, and J.C. Wright. 2001. “Early Childhood Television Viewing and Adolescent Behavior.”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1): 1-8.
- Atwell, P. 2000. “First and Second Digital Divides.” *Sociology of Education* 74(2): 252-259.
- Bonfadelli, H. 2002. “The Internet and Knowledge Gap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7(1):65-84.
- Bianchi, S.M and J. Robinson. 1997. “What Did You Do Today? Children's Use of Time, Family Composition, and the Acquisi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2):332-44
- Blau, P. and O.D. Duncan. 1967.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Y.: Free Press.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2001. “The Forms of Capital” pp.96-111 In Granovetter, M and R. Swedberg (ed).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Boulder: Westview Press.
- Dimmagio, P.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1): 189-201.
- Dimmagio, P. and E.Hargittai. 2001. “From the 'Digital Divide' to 'Digital Inequality': Studying Internet Use as Penetration Increases.” *Working Paper*.
- Erikson, R., J. Goldthorpe and L. Portocarero. 1979.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in Three Western European Societies: England, France, and Swede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0(3): 415-441.

- Featherman, David L. and R.M Hauser. 1978. *Opportunity and Change*. New York. Academic Press.
- Hargittai. E. 2002. "Second-level Digital Divides: Differences in People's On-line Skill." First Monday retrieved from <http://www.eszter.com/research/pubs/hargittai-secondleveldd.pdf>
- Hargittai.E and A. Hinnant. 2008. "Digital Inequality: Difference in Young Adults' Use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35(5): 602-621.
- Howard, P.N , L. Rainie, and S. Jones. "Days and Nights on the Internet: The Impact of Diffusing Technolog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383-404.
- Kalmijin, M. 1994. "Mother's Occupational Status and Children's School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259-275.
- Kim, S.M. 2003. "The Impact of Unequal Access to the Internet on Earnings: A cross-sectional Analysis." *Perspective on Global Development and Technology* 2(2): 215-236
- Koijusilta, L.L, T.P. Lintonen, and A.H. Rimpela. 2007. "Orientations in adolescents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 digital Divide by Socioeconomic Background, Educational Career, and Health."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5: 95-103
- Lee, S-H. and J. Kim. 2004. "Has the Internet Changed the Wage Structure Too?" *Labour Economics* 11(1): 119-127.
- Lin 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vingstone, S and E.J. Helsper. 2008.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52(4): 581-599.
- Madden M. 2003. *America's Online Pursuit*. Washington D.C. 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Project.
- Mossberger, K., C.Tobert, and M. Stansbury. 2003. *Virtual Inequality: Beyond the Digital Divid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Molnar, S. 2003. "The Expla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s" Available: <http://www.cs.kau.se/IFIP-summerschool/proceedings/molnar.pdf>
- Nathanson, A.I. 1999. "Identifying and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Mediation and Children's Aggression." *Communication Research* 26(2): 124-143.
- Nie, N and L. Ebring. 2000. *Internet and Society: A Preliminary Report*. Stanford Institute for the Quantative Study of Society.

- Ng, Y.C. 2006. "Levels of Computer Self-Efficacy, Computer Use and Earnings in China." *Economic Letters* 90: 427-432
- Norris, P.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ter, J and P. Valkenburg. 2006. "Adolescents' Internet Use: Testing the 'Disappearing Digital Divide' Versus the 'Emerging Digital Differentiation' Approach." *Poetics* 34: 293-305.
- Sewell, W.H, A.O. Haller, and G.W. Phlendorf. 1970.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Process: Replication and Revi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6): 1014-1027.
- Sewell, W.H., R.M, Hauser, K.W. Springer and T.S. Hauser. 2004. "As We Age: a Review of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1957-2001" In K.T. Leicht(ed.),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Oxford, UK: Elsevier.
- Van dijk, Jan A.G.M. 2005. *The Deepening Divide: Inequa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ousand Oaks, Sage.
- Van dijk, Jan A.G.M. 2006. "Digital Divide Research,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Poetics* 34: 221-235.
- Warren, R. 2005.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Communication* 55: 847-863.

<접수 2011/10/28, 수정 2011/11/16, 게재확정 2011/11/17>